

# 모윤숙의 젠더 전략과 사적 글쓰기의 교차

복경연\*

파리 유엔 총회기 『내가 본 세상』을 중심으로

**초록** 직접 경험으로 세계를 사유할 수 있게 된 195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제 3차 유엔총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저마다의 기록을 출간했는데, 이때 유일한 여성 문인의 기록이 모윤숙의 『내가 본 세상(世上)』이다. 『내가 본 세상』에서는 '가장된 비정치성'의 전략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역할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적 발화들이 간취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작품의 공간이나 민족성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모윤숙의 젠더 전략과 그에서 이탈하는 자기모순의 지점에 주목해보고자 했다.

『내가 본 세상』에서 모윤숙은 자신의 위치를 '벽촌소녀'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장하는 도구인 한편, 벽촌소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여성들을 재단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했다. 모윤숙의 젠더 전략은 민족의식과 순수성을 표방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한편 이러한 공적 글쓰기 이면에는 당대 여성(문인)으로 하여금 요구되었던 젠더적 역할 바깥의 사적 발화들이 착종되어 있기도 했다. 이성애적 가부장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처벌·관리되어 왔지만 『내가 본 세상』에서는 당시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으로 긍정하는 한편, 오히려 남성 지식인들을 대상화하면서 젠더의 역전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내가 본 세상』은 유엔 총회담이라는 공적인 글쓰기와 모윤숙의 사적인 일기라는 역할을 교차하며 존재하는 복합적인 글쓰기의 장이다. 전통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젠더 전략의 방식이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한편, 억압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욕망에 대한 사적인 발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주제어** 내가 본 세상, 모윤숙, 젠더전략, 유엔총회기, 사적 글쓰기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1. 제3차 유엔총회와 ‘여성 문인’의 참관기

1950년대는 한국문학을 세계와의 관련 아래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부상하였다. 담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계를 사유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해방과 전쟁 등의 상황과 결합하여 세계를 ‘직접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인들의 세계 여행이나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해 서양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한 문인들이 여행 이후 견문록을 발표하는 등 해외기행문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이태준의 『위대한 새 중국』(1952), 김말봉의 『하와이의 야화』(1952), 『아메리카 3개월 견문기』(1955), 서만일의 『인도기행』(1957) 등 인근의 동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유럽, 그리고 인도와 같은 제3세계를 견문한 기록들도 줄줄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모운숙 역시, 자신의 ‘제3차 유엔총회’ 참관 경험을 기행문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1948년 9월,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총회’에 방문한다. 이때 대표자 자격을 얻은 인물들은 ‘이승만’ 대통령, ‘장면’, ‘장기영’, ‘김활란’, ‘전규홍’, ‘조병옥’, ‘김우평’, ‘정일형’<sup>1)</sup>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모운숙은 공식적인 대표자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었으나 파리 도착 이후 대표자들과 함께 의석에 앉아 있거나 각국 인사들과의 뒤풀이를 즐기는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함께 총회에 참가했음이 밝혀졌다. 모운숙은 YWCA 행사를 위해 파리에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이전 이승만의 전화를 받고 유엔총회 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일종의 ‘옵서버’ 역할을 수행했다.

모운숙은 자신의 유엔 총회 방문기를 1949년 9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문예』 잡지에 연재했으며, 1953년에 『내가 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수도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내가 본 세상』에 대한 기

1 미상, 「國運을銀翼에UN」, 『경향신문』, 1948. 9. 10.

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민족적 시각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모윤숙의 총회기를 여타의 세계 기행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견문록으로 살펴본 결과일 것이다. 이민영은 잡지 『문예』와 창간인 모윤숙의 세계 인식론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본 세상』을 근거로 가져온다. 미국과 파리를 인식하는 모윤숙의 시각의 바탕에는 휴머니즘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문예』 잡지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시각이다.<sup>2</sup> 배안숙<sup>3</sup>과 김혜인<sup>4</sup>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파리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민족성을 발견하는 모윤숙의 민족담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송영순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을 감각하는 모윤숙의 행적과, 그 속에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 등을 간취해내며 논의를 이어나간다. 그러나 덧붙여, 『내가 본 세상』에 수록된 「전후구미여성의 인상」 부분에 주목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외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논한 글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교육 수준, 남성에 대한 여성 역할 등<sup>5</sup> 여성에 대한 모윤숙의 관심의 척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김양선은 모윤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민족주의의 대표자라고 주입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성을 동원하기도 한다며 민족과 여성에 대한 모윤숙의 시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sup>6</sup>

- 
- 2 이민영(2020), 「한국전쟁기 문예지 《문예》와 냉전 지리학의 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1-2, 한국근대문학회.
  - 3 배안숙(2012), 「모윤숙(毛允淑)의 인식과 활동(1945-1953)」,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4 김혜인(2023), 「모윤숙의 자기 서사 연구: 젠더 규범과 민족주의 아래서의 자기 증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 5 송영순(2015), 「자유주제: 모윤숙의 세계기행문 『내가 본 세상』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4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6 김양선(2010),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상술하였듯, 기행문의 주요 공간이 뉴욕과 파리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두 거대도시의 공간 재현 문제를 논의하거나, 미국과 유럽을 바라보는 모윤숙의 시각과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민족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윤숙의 민족과 여성에 대한 관심은 상술한 선행연구 이외에도 다수의 글을 통해 증명되어 왔지만, 『내가 본 세상』에서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통합되지 않는 모윤숙의 사적 발화라든가 여성으로서의 욕망 등이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모윤숙이 전면적으로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 「전후구미여성의 인상」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본 세상』 전반에 걸쳐 모윤숙이 여러 국내·외 여성들과 만나며 그들을 감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제3회 유엔총회에 대한 기록물은 조병옥의 『특사 유엔기행』(1949), 정일형의 『한국독립비사 UN과 한국』(1950), 장면의 「한국외교 황무지 개척을 회고한다」(1958)<sup>7</sup>가 있으며 김활란 역시 자신의 자서전 『그 빛 속의 작은 생명』(1999)에서 유엔 총회 경험을 발화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모윤숙의 『내가 본 세상』이 유일한 여성문인의 기록이라는 점은 시사성을 지닌다. 모윤숙의 총회 참관이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기행문의 발간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거시적인 목표이다.

나의 과거 기록이 그렇게 신선미를 독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것을 알 때 미안하다. 다만 하나의 희망은 나 자신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에서 여자의 눈과 여자가 느낀 최초의 세상풍경은 어떠했나 하는 것을 재미삼아 읽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할 뿐이다.<sup>8</sup>

7 김혜인(2023), p. 100.

8 모윤숙(1962), 『포도원·내가 본 세상』, 일문서관, p. 276. (이후 같은 책 인용은 내주로 표시)

모윤숙은 스스로도 본인의 글이 기존의 기행문들과 달리 “여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차별성을 지남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젠더정치의 지점은 총회기의 서문에서부터 포착된다. 머리말은 정전 이후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본격적인 기행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윤숙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전제하면서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글이 다른 유엔총회의 논의들에 비해 특별한 신선함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의 눈으로 목격한 “최초의 세계감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이라는 위치가 ‘여성 국민’이라는 모순을 나타냄으로써 젠더와 내셔널리즘이 병행할 수 없는 국민 국가의 균열을 노골화한다고 이야기한다.<sup>9</sup> 여성의 국민화는 여성성을 노골화하는 국민 국가의 젠더 정치 방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젠더 정치라 함은 사회의 젠더 구조나 여러 불평등과 관련한 의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젠더 정치는 젠더를 정치적 전략에 사용한, 다시 말해 여성성을 내세움으로써 국민 국가가 ‘여성 국민’을 상상해낸다는 점에서 젠더 전략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산되면서 여성 작가들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 개입하기도 했으나, 한국전쟁과 냉전의 맥락 속에서 다시금 가부장제 국가 체제를 승인하는 ‘여성 국민’으로 포획되어 갔다.<sup>10</sup> 모윤숙 역시 섹슈얼리티나 모성성과 같은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내세움으로써 정치적 권력에 편승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내가 본 세상』에서 모윤숙은 남성 문인, 정치인들의 방식과는 달리 자신의 위치를 소략화하고 ‘가장된 비정치성’의 전략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젠더관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역할로부터 이탈하여 자

9 우에노 치즈코(1999), 이선이(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p. 95.

10 김경연(2019), 「‘배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 냉전의 젠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p. 171.

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적 발화들이 간취되기도 한다. 임정연은 서양과 동양을 대결구도 속에 배치·위계화 하려는 남성문인들과 달리 여성문인들은 여성 외교관이라는 ‘공식적 지위’와 함께 민족이라는 소속에 앞서 한국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호출하는 공간에 동시적으로 놓여 있다고 본다.<sup>11</sup> 모윤숙 역시 UN 총회의 참석자인 한편 외국에서 소수적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 여성으로, 『내가 본 세상』은 그녀의 공적·사적 위치가 착종되어 있는 작품이다. 민족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가부장 질서에 통합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모윤숙의 순응적 젠더 전략과 그로부터 이탈하는 자기모순의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본 세상』이 기행문이긴 하나 일기 형식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글쓰기와 사적 글쓰기의 교차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이 이를 보충한다.

따라서 본고는 『내가 본 세상』에서 ‘벽촌소녀’라는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모윤숙의 젠더 전략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당대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젠더적 역할에 순응하는 한편, 그와 길항하는 자기모순의 지점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새로운 시각에서 『내가 본 세상』을 재독해 보고자 한다.

## 2. 가장(假裝)된 비정치성과 벽촌 소녀의 젠더 전략

모윤숙은 자신의 여성성을 바탕으로 내셔널리즘을 체화했던 문인으로 평가된다. 식민지 시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친미

11 임정연(2014), 「여성의 이국 체험과 감성의 지리학: 1950-70년대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3, 이화어문학회, p. 62.

적인 성향을 보이며 새롭게 등장한 권력에 편승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모윤숙은 국가와 민족의 호명을 받고 정치활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국가의 주요 사업과 동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력 탓에 ‘여성 외교관’으로 평가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sup>12</sup> 공임순은 모윤숙이 앞-권력-성의 일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여성 정체성을 섹슈얼한 성적 주체로 고착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sup>13</sup> 특히 그녀는 한국전쟁 이후 ‘낙랑클럽’을 조직하면서 여성성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외교동맹을 시도하기도 했다.<sup>14</sup>

모윤숙은 여류 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여성을 활용한 젠더 전략을 통해 문단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잡지 『문예』를 창간하거나 국제펜클럽 한국지부를 창설하는 등 문단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꾸준한 젠더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남성 정치인 못지않게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했는데, 특히 제3차 유엔총회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열린 제4차 유엔총회의 참가 자격까지 얻게 되었다는 점 역시 문학 제도권 내부에서 그녀가 안착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내가 본 세상』 역시 젠더적 시각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기행문 자체의 정치적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모윤숙이 여성 문인으로서 제도권의 영역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내가 본 세상』에서 당대 여성 문인에게 기대되었던 젠더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 
- 12 김승구(2006), 「모윤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의 관련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p. 246.
- 13 공임순(2008), 「스캔들과 반공: ‘여류’ 명사 모윤숙의 친일과 반공의 이중주」,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학회, p. 184.
- 14 낙랑클럽은 이전 김활란이 조직한 ‘홍보외교동맹’과 유사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감행했다. 미군 장교와 외교관들을 상대로 이승만을 위한 정보수집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인 여성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접대, 매니지먼트의 방식으로 민간외교를 수행했다. 이임화(2004), 「[기획특집]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pp. 112-114.

피상적인 적은 눈이 아모 예비지식 없이 별안간에 보고 느낀 데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내가 본 세상>이다. 내 이미 행운이 있어 외국유학이라도 한번 해본 과거를 가진 채 세상을 돌아다녔더라면 나의 세계기행은 비판과 상식을 갖춘채 과히 부끄러움이 없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내가 본 세상>은 마치 벽촌小女가 생전 처음으로 넓은 장터에 구경을 나갔다 온 뒤에 변한 심경 혹은 당황한 이 얘기를 그 친구나 이웃에게 전달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275)

『내가 본 세상』의 머리말에서 모윤숙은 자신의 글은 단순 감상문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민족과 한국문학에 대한 언급을 하며 글의 정치적 목적을 되새기는 지점들에서 단순 풍경 감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모윤숙의 제3차 유엔총회 참관 과정을 돌이켜볼 수 있다. 당해 12월 기사에 따르면 유엔 대표자들의 기념 촬영에 대해 ‘모윤숙(마침 파리에 갔다가 함께 촬영)’<sup>15</sup>이



출처: (좌) 조유미·유석재,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유엔이 인정했어요」, 『조선일보』, 2024. 6. 14. (우) 오세택, 「[시대의 등불이 된 재속 프란치스코들]-〈1〉 장면 박사(중)」, 『가톨릭평화신문』, 2011. 1. 18. (재속 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자료 제공)

[그림 1] '제3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대표단 사진(각각 왼쪽 하단, 왼쪽 세 번째 여성이 모윤숙이다.)

15 미상, 「UN代表團一行巴里서記念撮影」, 『경향신문』, 1948. 12. 23.

라고 언급하고 있다. 원래 모윤숙은 같은 해 8월 국제여자기독교청년대회(YWCA)의 한국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는데, 대회 후 귀국하던 중에 이승만의 연락을 받고 유엔총회 현장으로 향했던 것이다.<sup>16</sup>

모윤숙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벽촌 소녀”라고 지칭하지만 이는 결국에 순수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과시하는 젠더 전략의 방식이다. 사실 유엔 총회 참관 과정만 봐도 모윤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벽촌 소녀’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위 사진에서도 간취되듯, 모윤숙은 다른 대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식적인 총회일정을 소화했다. 뉴욕에서 열리는 YWCA 회의에 참여하고, 이후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제3차 유엔총회까지 참여했던 모윤숙은 그저 관광객의 위치가 아니라 한 명의 민간 외교자로서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남성 정치인만큼이나 활발한 정치적 활동들을 이어왔던 모윤숙이지만, 기행문에서는 자신의 과거 행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고 있다. 모윤숙이 동행했던 대표자들은 김활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은 유엔총회 전날 비로소 등장할 뿐이다. 오히려 텍스트에서 남성과의 교류는 거의 없고, 동서양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모윤숙은 남성 정치인들과는 거리를 둬으로써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함과 동시에 비정치성을 내세우는 글쓰기 방식을 택했다. 이는 모윤숙의 젠더 전략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모윤숙의 ‘공적인 글쓰기’ 방식은 여타의 남성 지식인들이 직접적으로 외교나 정치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과 대비되는, ‘벽촌 소녀’라는 가장(假裝)된 비정치성을 내세우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공적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특히 여정에서 만난 여성들에게서 어떠한 젠더성을 포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녀의 젠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정은 그날마다의 일기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유엔총회라는 거대

16 송영순(2015), p. 227.

사건을 제외하고는 계획되지 않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우연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모윤숙이 기행의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은 과연 우연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일까? 유엔총회 이전까지의 여정은 크게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뉴욕 파리에 도착하는 순서이다. 각각의 공간들에서 모윤숙은 동서양의 다양한 여성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인상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나열·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이미지를 선택 혹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엔총회’의 여정에서 마주한 여성들 간의 관계를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사는 미국행 여객선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모윤숙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여성은 요코하마에서 탑승한 미국 여성 ‘스미스’이다. 고향에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탄 스미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도오꼬오 「맥아더」 사령부의 일을 보고 있다가 지금 「뉴욕」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282)이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이후 찾아간 여성 역시 과거 모윤숙이 이화여대 학생이던 시절, 음악 교수로 있던 윤성덕이었다. 이 밖에도 모윤숙이 타국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은 YWCA의 상무간사로 있는 ‘뎀’, 함께 유엔총회에 참가한 ‘김활란’, 미국 대좌의 부인 ‘데리쓰’ 등이었다. 모윤숙은 남성 정치인과의 교류보다 여성들과의 교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여정이 다분히 일상적인 여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윤숙이 교류하는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지위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여성 인물들을 언급할 때는 항상 ‘여사’라는 존중의 호칭을 사용하는 점에서도 그들의 위치성이 드러난다. 서양에서의 여성 교류·연대를 표방하지만, 사실 이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정치적인 권력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이는 ‘이정애’의 존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자신의 은사 윤성덕을 만난 모윤숙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정애를 소개받게 된다. 만남 이전까지 모윤숙에게 이정애는 그저 ‘김활란의 가까운 벗’이었으며, “청렴순수한 규수아가씨” 정도로 묘사되었

다. 그러나 이정애는 그저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는 벽촌 여성은 아니었다. 이정애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로, “불모지였던 한국 80년 간호사의 서막을 연 개척자” 혹은 “백의의 선각자” 등으로 칭송<sup>17</sup>받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여대생의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모윤숙의 서술에서 이정애의 위치는 의도적으로 숨겨진다.

특히 이정애가 도미해서 간호학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김활란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 역시 시사성을 가진다. 1999년 발간된 김활란의 자서전 『그 빛속의 작은 생명』에서도 이정애에 대한 언급이 주요하게 등장하는데, 김활란은 이정애를 자신의 동반자적인 존재로 회고한다. 이정애는 ‘부지런하고 조밀하며 민활하고도 헌신적인 한국의 모범이 될 만한 여성이었다’(296)라고 평가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명했을 때 애정에 기초한 공/사 영역 분할에 의한 젠더 논리가 내면화<sup>18</sup>되어 있었음이 밝혀진다. 이정애는 해방 이전부터 김활란의 위계적 권력 구조 아래 놓여 있었으며, 더욱이 미국 유학 역시 김활란과의 우의와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윤숙이 이정애를 만나게 된 사건 역시 마냥 일상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으로만 읽어낼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행문에서는 모윤숙이 만남을 ‘선택’한 여성들의 정치적 위치나 지위는 가려지고 그들의 순수성, 여성성만 강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모윤숙의 젠더 정치 방식과도 연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는 여성들의 만남 과정에서 정치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정애를 묘사하는 지점에서 모윤숙이 어떠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7 이종연, 「黎明의 開拓者들 (15) 李貞愛」, 『경향신문』, 1984. 6. 16.

18 이정애는 이혼 후 이화학당 선배였던 김활란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올 수 있었으며, 유학을 마친 후부터 자신의 암투병 이전까지 마치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처럼 김활란의 정치적 활동을 보좌하는 가정부인 역할을 도맡았다. 송인화(2016), 「김활란 자서전 『그 빛속의 작은 생명』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 참여 방식과 공간의 정치」, 『인문학연구』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247-248.

그의 쪽진 머리가 희랍 여신의 신비성을 풍기는 데가 있어 저런 女性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 맵씨와 생김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족하리라 하고 만족하였던 나라 실제로 그의 인간성과 마주쳐보기는 서울 아닌 뉴욕에서였다. 까만 치마에 하이얀 白色 저고리를 서울에서 보다 더 뿔뿔이 차려입고 그 위에 외씨 같은 버선에 하늘빛 고무신이 그의 발을 언제나 담고 있음이 나 자신을 심히 놀라게 하였던 첫 인상이었거니와 인연 없이 만난 이 우연이 그의 속속드리 아기자기한 성품과 인간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큰 수작중의 하나였다.(297)

이정애는 모윤숙으로 하여금 어떠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여성으로 서술되는데, 그녀의 호기심을 끌었던 지점은 “청렴순수한 규수 아가씨”가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였다. 희랍은 모윤숙에 의해 꾸준히 “신비와 고적”의 나라이자 “종교와 학문의 원천”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왔다.<sup>19</sup> 이전에는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으로부터 지인 정도로만 전해 들었던 여성이었는데, 뉴욕에서 이정애와의 만남은 모윤숙이 가히 “수작 중 하나”라고 평가할 정도로 최고의 순간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서양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은 채로 저고리를 “서울에서보다 더 뿔뿔이 차려입”은 이정애의 당당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바른 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반에는 서양에서 쪽진 머리를 고수하는 이정애의 외적 이미지를 신비의 상징인 ‘희랍 여신’에 빗대는 정도로만 서술하지만, 이후 ‘고구려 아씨’라는 이미지로 변주시킴으로써 그녀의 애국심과 교육열을 자국민의 정체성으로 확보한다.

그는 「컬럼비아」대학에 이년 동안 한하고 재학중인데 한국옷 그대로 남

19 모윤숙·전숙희, 「毛允淑 田淑禧 新春對談 神秘와 古蹟의 나라 [希臘]」, 『경향신문』, 1959. 1. 5.

자머리 그대로 고무신 그대로 미국 학생들 틈에서 공부를 하신다. L여사는 진정한 한국의 향수를 수 놓는 꽃이라 생각했다.(297)

모운숙에게 완벽한 여성상은 단지 검소한 옷차림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정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유명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에서 서양 학생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낭자머리”와 “고무신” 차림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그녀의 정절(情節)이었다. 이는 여정의 초반에 미국행 배 안에서 사치를 즐기는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고독감을 느끼던 모운숙의 경험과 대비된다. 모두가 미국말을 하는 공간에서 마치 고립된 듯한 위압을 서술한 바 있는 모운숙은, 대다수의 서양학생들 속에서도 정절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한국적인 모습을 지켜나가는 이정애를 칭송하였다. 특히 이정애와 상반되는 ‘에임쓰’에 대한 서술을 통해 모운숙의 여성관이 더욱 구체화된다.

「에임쓰」女史는 대단히 검소한 옷을 입고 말하는 것도 원리원칙으로 대단히 교훈적이었으나 미국여성의 호사스런 생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위신을 잃으리만치 흥분 되어 상대방을 평하는 데는 유쾌한 인상은 못 주었다. 그래서 영국 여성의 고유한 전통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무교양에 가까운 표정과 말을 한다. 자기는 그것을 모르는 모양으로 영국만이 훌륭하고 영국이 세계를 리드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동정도 대단하여서 앞으로 큰 친구가 되고 돕고 사랑하자 한다. 그러나 삼백년 동안을 밟아래 밟던 저 인도의 고민을 생각할 때 그의 말이 정말일까? 싶도록 의아하기도 하다.(302)

에임쓰 역시 단정한 옷차림을 한 영국의 교육자 여성이었으나, 모운숙은 서양에 대한 반감과 함께 에임쓰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말들에서

모윤숙은 어떠한 교양도 느끼지 못한다. 에임쓰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갖추었지만, 실상은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결국 서문에서 상징한 ‘벽촌소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장하는 도구인 한편, 벽촌소녀의 순수한 이미지로 다른 여성들을 구획해내는 기준점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모윤숙의 오래된 민족의식과 시대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 전쟁과 국가재건의 담론 속에서 모윤숙은 “요조숙녀의 허위의 탈을 벗고” 국가를 위한 애국적 실천을 촉구했으며,<sup>20</sup> 특히 “세계적(世界的)인 이상국가서서(理想國家西署)의 행정관(行政官)들은 모두 여성(女性)들에게서 교육(教育)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1</sup>는 등 여성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에임쓰와 이정애에 대한 상반된 서술, 그리고 이정애를 통해 신비와 고적의 나라인 희랍 여성에서 고구려 여사라는 친근한 자국의 정체성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문인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민족적 글쓰기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여성의 의상이나 심상에서 발견하는 서술전략은 모윤숙이 관제 민족주의를 구축하는 과정<sup>22</sup>이기도 했다.

살펴보았듯 모윤숙의 젠더 전략은 민족의식과 순수성을 표방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며, 기행문에서 모윤숙은 자신의 이전 정치적 이력들과 총회 참관 과정을 숨기면서 비정치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특히 남성 정치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정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벽촌소녀’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윤숙 본인을 비롯해 그녀가 관계 맺은 여성들은 저마다 지위를 가진 여성들이었으며, 오히려 벽촌의 반대 공간에 위치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속에는 한인 생태계를 고찰하고 전망하려는 정치적 의도들이 개입되

20 모윤숙, 「女性에게외친다」, 『경향신문』, 1952. 1. 1.

21 모윤숙, 「戰後歐美女性의印象 各國女性의特徵」, 『경향신문』, 1949. 2. 27.

22 김양선(2010), p. 213.

어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젠더 이미지를 도출해 나가는 서술 전략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모운숙이 이러한 가장(假裝)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어낸 정치적 성취는 무엇인가? 가장된 비정치성은 당시의 모운숙뿐만 아니라 이전/이후 시대의 여성 문인들에게 꾸준히 기대되어 왔다. 근대 정치에서 공적인 것으로 표명 될 수 없던 개인의 욕망은 언제나 여성적인 것으로 그려지며 스캔들과 결합되어 왔다.<sup>23</sup> 때문에 여성 문인들은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남성적 글쓰기의 방식을 채택해야 했으며 모운숙 역시 ‘벽촌 소녀’, 즉 타국의 ‘소수자’로서의 한국 여성이라는 사적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공적 위치를 마련해 갔다.

다만 근대 초기부터 여성 문인들은 가부장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기존 질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예컨대 민족 통합의 기호로서 모성 이미지를 생성<sup>24</sup>하며 가부장 담론에 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거나 성녀와 마녀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을 허물어버리는 등 가부장 질서를 위반하기도 했다. 여성 문인의 표면적 순응 그 이면에는 여성 주체로서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내가 본 세상』 역시 남성의 시각에 의해 상상된 ‘벽촌소녀’의 이미지를 채택하면서도,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까진 아닐지라도 유엔 총회라는 정치적 사건 속에서 여성의 사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가부장제는 사랑, 모성, 순결 등의 개념을 빌려 여성들의 종속적인 위치를 은폐시키는 견고한 체계이다.<sup>25</sup> 그러나 이를 뚫고 돌출되는 사적 발화의 지점들은 여성

23 김혜인(2023), p. 14.

24 장은영(2023), 「한국전쟁기 여성 문화인의 협력과 위반: 종군 기관지 『코메트』, 『戰線文學』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3-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 23.

25 김은하(2019),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

주체의 존재를 가시화해 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도록 한다.

### 3. 기독교적 여성성의 수행과 자기모순의 길항

주지하다시피 모윤숙의 많은 작품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내가 본 세상』에서도 기독교 여성으로써의 자기 인식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YMCA 대표자’라는 명칭과 함께 서사 곳곳에 삽입된 기독교적 알레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순수한 젠더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여성성을 포착할 수 있다.

50년대 한국 기독교 여성 담론이 지니는 보수적 성향은 보편적 가부장성에 더하여 여성 교양 이념에 보다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의 육체를 부정하고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 그것이다.<sup>26</sup> 여러 수필과 담화 등에서 발화되어 왔듯 모윤숙 역시 여성의 향락을 단속하고 육체나 욕망에 앞서 정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보편성만이라기보다는 모윤숙이 몸담았던 이화여전의 영향 역시 지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전의 엘리트주의 교육은 문학, 예술, 가정학 등의 분야를 모두 종교로 귀결시켰는데, 특히 ‘기독교적 정신’은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정책과 결합하면서 여성의 정신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기독교의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여학생들이 육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영혼의 단련이었다. 기독교적

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p. 17.

26 송인화(2011),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1950년대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기독교: 임옥인의 『뜰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481.

정신은 남녀를 분리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맥락을 함께했다.<sup>27</sup>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문인들에게 종교는 예술보다 앞서 문학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작용했으며, 모윤숙 특유의 보수성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아래 만들어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모윤숙이 기존의 전통적 젠더관을 답습하고 있다고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글쓰기의 장이다.

앞 장에서 상술했듯이, 『내가 본 세상』에서 모윤숙은 독특하게도 함께 파리 총회에 참가한 남성 지식인들보다, 여정 과정에서 마주친 ‘여성’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리에 없는 남성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기독교적 여성의 자기모순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전통 가족에 대한 해체적 인식 등 여성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 아닌, ‘이혼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사적인 발화가 돌출되기도 한다. 모윤숙은 기독교 교육의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3장에서는 『내가 본 세상』의 사적 글쓰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행문에 등장하는 여성 대부분이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들이라는 점은 독특하다. 여정 초반에 만난 미국인 스미스와 파리의 이정애, 그리고 동행한 김활란까지. 이들은 모두 남편과 헤어진 ‘이혼 여성’이었으며 모윤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상 가족 바깥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모윤숙의 시각은 일관되지 않고 다소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그녀는 기독교 여성으로서 보수적인 연애관을 보여주는 한편, 이성애 여성으로서 남성애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이는 여정 초반의 스미스와의 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7 윤희나(2018),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과 여학생 작품의 ‘S’ 감정」,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p. 379.

온통 미국말을 쓰고 화려하게 꾸민 미국인들뿐인 여객선에서 고독감을 느끼던 모윤숙은, 전날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시치미를 떼고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에 염증을 느끼면서 서구 사람들과 자신을 구획한다. 모윤숙에게 미국행 유람선은 단절된 공간으로 재현되는데, 유일하게 그 속에서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여성이 바로 ‘스미스’였다.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코하마에서 탑승한 스미스는 급속도로 모윤숙과 가까운 관계가 된다. 스미스와 모윤숙은 배 안의 유일한 독신 여자였으며, 그녀는 진실한 태도로 모윤숙을 대해주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의 유일한 동지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스미스가 모윤숙을 찾아와서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이후부터였다. 스미스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1년 전 아들이 동경에서 죽었다는 과거를 얘기하면서 모윤숙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이자 남편이 없는 비슷한 처지에 공감을 느낀 모윤숙 역시, 겉치레만 신경 쓰는 배 안의 미국 여성들과 달리 스미스는 진솔한 여성임에 확신을 가진다.

모윤숙은 학도호국단을 창단한 안호상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으나 47년부터 별거 생활에 들어서게 되었는데<sup>28</sup> 이러한 생애를 떠올려본다면 배 안의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스미스에게 모윤숙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부재’라는 공통분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은 국가 재건과 가족 담론 속에서 여전히 정상 가족의 논리가 공고하게 작동했던 때였다. “서양의 개별 가족제를 아무런 비판 없이 모방”하게 되어 “부부 간에 자칫하면 이혼하는 일이 많”다며 ‘부계주의를 강조<sup>29</sup>하는 당시 가족 담론 속에서 이혼여성의 존재와 그 서사를 전면화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지점이다.

28 최영훈, 「安浩相씨 누구인가 초대 문교…「一民族주의」주장 학도호국단創團」, 『동아일보』, 1995. 4. 17.

29 김은경(2007),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9.

스미스는 미국인인데다 과부로, 제도에서 벗어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윤숙으로 하여금 감정적 변화를 추동하는 인물로 서술된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향했던 스미스의 관심이 ‘잭’이라는 미군 중령에게로 옮겨갔을 때, 모윤숙은 자신도 이해가지 않는 어떠한 질투를 느끼면서 다시금 외로움에 휩싸인다. 특히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고도 다른 남성과 아무렇지 않은 듯 교류하는 스미스의 모습을 보고 모윤숙은 ‘단지 「스미쓰」는 미국 여자인 만큼 자유분방의 감정이 농후하리라고만 생각되었다.’(284)라고 낙망한다. 결국 스미스는 모윤숙에게 완전한 충족을 주지 못한다. 모윤숙이 한순간에 스미스를 배 안의 다른 향락적인 미국인들과 같은 위치로 추락시킨 것은, 스미스가 남성과 이성적인 감정을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남성이 부재한 같은 처지로써 여성들만의 내밀한 교류를 했다고 믿었으나, 이튿날 바로 잭 중령과 로맨스 관계를 형성한 이중성에 실망한 것이다.

스미스와 잭 중령을 바라보며 ‘스미스도 미국여자처럼 자유분방하다’고 평가하고 그녀의 연애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것에는 물론 개인적 질투의 이유도 있겠지만 스미스가 아들을 둔 ‘엄마’였다는 점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모윤숙은 여성이 결혼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최악시하였다. 이는 모윤숙의 보수관이 드러나는 지점이며, 여정 초반의 모윤숙은 여전히 젠더적 가면을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후 윤성덕과의 만남에서는 자기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여성성의 수행 그 이면의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배에서 내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모윤숙은 ‘할리우드’<sup>30</sup>를 기대하면서 우선 학생 시절 음악선생님이던 ‘윤성덕’의 동네로 향한다. 한인 교회의 교인들과 윤성덕은 모윤숙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최초로 마주한 한국인 집단이었다. 윤성

30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유엔총회라는 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감상이 ‘할리우드’와 같은 관광에 대한 기대인 것 역시 사적(私的) 발화의 지점이다.

덕의 딸 ‘매디’에게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차생달을 비롯한 한인교회의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모운숙이었지만, 그 만남은 어딘가 모르게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윤성덕과의 만남 이후 “남편이 아니었던들 그는 벌써 한국에 돌아갔을 것이라는 말에서 남편의 힘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인가도 생각해보았다.”(293)라고 내면 독백하는 모운숙의 시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승에 대한 존경보다는 윤성덕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연민이 간취된다. 미국의 박사 남편과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한인 타운 교인 공동체를 형성한 윤성덕은 전통적 가부장 사회의 관점에서 올바른 여성상을 표방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에서는 공적인 글쓰기라는 가면 너머에서 제도에 대한 회의(懷疑)가 불쑥 돌출되기도 했다. 모운숙은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며 윤성덕을 바라보는데, 그녀의 시선에 비친 윤성덕은 ‘종종 향수로 인해 서글퍼하는 여성’이었으며, ‘남편에게 종속되어 미국에 남아있게 된’ 여성이었다.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내가 본 세상』 전반을 아우르는 젠더 전략의 방식과는 모순되는 지점이었다.

이렇듯 모운숙이 제도권 바깥의 여성들에게 감정적 동조를 느끼고 때로는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懷疑)를 느끼는 것은 다만 같은 처지라는 데서 비롯된 공감의 차원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혼 여성’이나 ‘과부’의 발화가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1950년대의 상황에서 모운숙의 사적인 발화는,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시화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스미스와의 일화 이후, 숙소에 도착한 모운숙이 혼자 ‘꽃다발’을 마주한 상황이 단편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

다발밑에 하얀 명함이 놓였기에 보니 계병주라는 이름이다. 저녁 밥상에서 만난 사람은 아년듯싶은 또 다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나 싶었다. 한국을 떠난지 꽤 오랜 한국사람이기에 여자에게 인사로 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한국 같으면 남자에게서 저런 꽃이 올리도 없고 왔다 하더

라도 내 맘이 이처럼 평정하지는 않을 것인데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으로부터 온 꽃이요 미국 땅에 와 앓은 한국 여자의 마음이기에 이처럼 평온한 것이 아닌가. 나는 화대에 놓인 화병에 물을 붓고 꽃을 풀어 꽃았다. 머리맡 선반에 신구약 성경이 가만히 놓여 있고 그 옆으로 풀고다를 배경으로 한 수난의 성화가 걸렸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밤을 지내기는 내 마음이 너무 동요되고 있다. 밖으로는 멀리 바닷물이 빛난다.(291)

모윤숙은 자신은 유엔총회라는 외교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남성이 보내온 형식적인 꽃다발을 보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그러나 꽃을 풀어 화병에 곱게 넣고, 그 옆의 성경책을 보고도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유엔총회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남자에게서 꽃을 받았을 경우를 상상하며 이성적 존재를 기대하는 등 ‘여성’ 모윤숙의 개인적 심상이 작동하고 있다.

참된 연애는 천재거나 위인의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보기 쉬움다. 피테는 위대한 연애의 체험자임으로 동시에 불후의 예술인이 된 것이다. 연애는 현명한 자의 머리 속에서만 자라 가는 장미다. 肉(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랑에 취할 수 있을 때 그 꿈은 길이 깨지 않고 상대방의 미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애는 진선미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며, 연령과 인종을 초월할 소질을 갖었다고 생각한다.<sup>31</sup>

이는 미국 역시도 “그저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키쓰나 하는 육체적 애정”을 배척<sup>32</sup>한다는 등 통속적인 연애를 비판하던 모윤숙의 발화들과 더욱

31 모윤숙, 「나의戀愛觀」, 『삼천리』, 1937. 10. 1.

32 모윤숙, 「毛允淑女史가 말하는 美國女性界(中) 精神의傾向과 愛情觀」, 『경향신문』, 1957. 3. 19.

극명하게 대비된다. 스스로가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肉(육체)'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관념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기존의 본인이 주장했던 연애관이라든가 기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지점들은 모윤숙 본인도 미처 숨겨내지 못한 남성애에 대한 욕망의 노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이탈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머니'와 같은 정상성의 몸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내가 본 세상』에서 모윤숙은 자기 스스로의 모순까지 포함하여 여성들의 섹슈얼리티한 요소들, 이탈된 여성들의 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수행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모윤숙의 글쓰기는 기독교 여성으로서의 보수관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규제되지 않은 사적 발화가 존재했다. 이러한 자기모순의 지점들에서는 당시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으로 긍정하는 한편, 오히려 남성 지식인들을 대상화하면서 젠더의 역전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아침을 한 절반이나 먹었을까 했을 때 장기영씨와 전규홍씨가 들어오시더니 「굿모닝」하며 우리 식탁으로 오신다. 철썩 얼굴에 나무랄데 없이 탐탐하게 이목구비가 정돈되어있는 장기영씨는 속에는 포가 들어찼는지 모르거니와 곱은 대단히 얇전하시고 조심성스런 태도로 남의 눈치를 먼저 살핀후에 그 경우에 맞추어 처세를 하시는 약은 분인 듯하다. 전규홍씨는 우선 그 키와 얼굴이 소위 대장부 풍류객으로 된 人品이신데 남의 눈치 보고 되사리고 하시는 성격이 아닌지라 누구를 만나나 어떤 장소에서나 그저 유쾌한 웃음보가 우선 주위의 공기를 흔들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319)

‘유엔총회’라는 외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윤숙이 남성들을 서술함에 있어 정치적 지위를 삭제하고 오로지 외적인 차원의 평가만 감

행한다. 이는 앞서 모운숙이 여성들의 인품과 외면을 강조하며 ‘민족적 미’를 은유한 젠더 전략의 방식과도 유사해보이나, 사실 그 내용을 관찰해보면 ‘이성적 감정’에 대한 표출 그 자체였다. 위 인용문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만 아니라 뒤이어 등장하는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이 눈에 띈다.

김활란과 모운숙은 다른 남성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다른 한국 대표자 남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모운숙은 피곤한 몸을 억누르면서 나가기 전 거울로 자신의 매무새를 확인한다. 또한 식사장소에서 만난 장기영 박사와 장면 박사를 보고 “서울서 보던 때보다 채림채림이 늙고 생김 것도 손색없이 생겼다고 여겨졌다”(310)며 매혹되거나 식당의 남자 직원들을 보고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부드럽고 감기는 맛이 있다”(310)라는 등 직설적인 감상평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본격적인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현장에서도 ‘리-총장’의 인상을 묻는 김활란의 질문에 대해 “얼굴이 너무 크군요”(314)라며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부분에서도 남성의 외모를 최우선으로 감각하는 여성의 욕망이 돋보인다.

더욱이 모운숙의 감각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성애적 욕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한 사유와 교차되기도 한다.

그 가운데로 천천히 움직이는 한 사나이가 있다. 눈은 아무 집착없이 떠 있고 손과 발은 어떤 리듬을 찾아 정열을 이야기한다. 발과 손이 음악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듯한 감이다. 몸 전체가 뜻이다, 언어다, 생각하게 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젊은 사나이요 나체라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을 먼저 감각한 후에야 알았다. (...) 그러나 막상 보면서 생각하니 무얼 가렸던들 그 몸은 것처럼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탄력 있는 선의 매혹적인 운동은 그 몸이 맺었다고 해서 아무 유감도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예술 때문에 싸아올리는 정열, 최고최선인 경지에 이르려는 미의 불꽃! 여기엔 인

생이 에텐의 나무입사귀로 그 몸을 가리기 이전의 생이 더 순미 순진의 경지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알리고도 남음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려다 분리되고 분리되려다 만나는 장면에서 고민, 투쟁, 희망, 절망, 소생, 이 여러 요소들과 타협 혹은 불행한 것들을 피하면서 구름 위 층계에서 인생과 청춘, 사랑을 소개한다.(321)

유엔총회 전날 관람한 파리의 나체 댄스쇼는 별거벗은 신체를 감상하는 모운숙의 가감 없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사실 선정성의 이유로 남성 대표자들끼리 가려고 했던 쇼 관람이었으나, 모운숙이 심리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고자 한 데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소속 욕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쇼에서는 여러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나체 댄스 쇼 다음으로 등장한 소녀의 무대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으로 같음하고 있다는 점 역시 관심의 척도를 보여준다.

다만 인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모운숙이 댄서의 몸을 통해 감상하고 있는 것은 성애적인 욕망이 아니다. 나체 댄스 과정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가 가장 먼저 감각한 것은 무대 위에 있는 무용수가 ‘젊은 사나이’라는 것도, ‘나체’라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몸’이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이 나체댄스의 과정을 창세기 ‘에텐’의 역사와 교차하여 인생의 회로에락을 발견해낸다. 남녀의 만남과정이 “고민, 투쟁, 희망”들과 타협하여 결국 ‘구름 위 층계에서 인생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기독교적 의미의 정반합이 떠오르기도 한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에로티시즘이나 알몸의 표현은 금지되고, 성에 대한 본능의 승화 역시 저지되어 왔다.<sup>33</sup> 「렌의 애가」에서도 영육이원론과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 아래 플라토닉 사

33 윤향기(2009), 『한국 여성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1쪽.

량을 그려내어<sup>34</sup>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체댄스를 관람하러 가게 된 것에는 ‘나체’에 대한 욕망이 분명 투입해 있었으나, 공연 과정에서 모윤숙의 몸에 대한 인식은 성애적 욕망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과 결합되면서 전환된다. 이는 육체에 대한 자기변호의 일종일 수도 있고, 『내가 본 세상』의 젠더 전략과 사적 발화가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한다.

모윤숙의 구약적 심상지리에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근간으로 자리한 동시에, 신앙과 대조되는 세속적인 욕망 역시 맞물려 있다.<sup>35</sup> 김옥성은 모윤숙의 시세계를 통해 주체의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가 분열되어 있음을 증명했는데, 『내가 본 세상』에서는 특히 나체댄스를 관람하는 서술 장면에서 이러한 복합적 글쓰기 양상이 가장 가시화되어 드러난다.

살펴보았듯 『내가 본 세상』에서는 가부장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그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때로는 두 지점이 착종되기도 한다. 모윤숙의 기독교적 사상에는 종교와 민족주의라는 공적 사유, 그리고 인간과 세속에 대한 사적인 사유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에서 모윤숙은 정상 가족 바깥의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을 보이기도 하는데, 전통적 역할로부터 이탈하는 여성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사적 글쓰기의 지점들은 유의미하다.

#### 4. 나가며

본고는 1950년대 세계기행문들의 등장과 함께 발간된 모윤숙의 유엔 총회담 『내가 본 세상』에 주목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기행문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민족과 세계에 대한 모윤숙의 인식을

34 윤향기(2009), p. 212.

35 김옥성(2014), 「모윤숙 초기시의 심상지리 연구: 민족주의, 제국주의, 센터멘털리즘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190.

논의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었다. 그러나 모윤숙의 정치적·문학적 행보들을 고려했을 때, 표면적인 민족의식이나 세계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내가 본 세상』의 공적인 글쓰기와 사적인 글쓰기를 대비하여 논의하고자 했다.

『내가 본 세상』은 유일한 여성 문인의 유엔 총회 기록물로, 모윤숙 본인은 “벽촌소녀의 감상문” 정도로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모윤숙과 관계 맺는 여성들은 여성 정치인 김활란이나 한국 최초의 간호사 이정에, YWCA 간사인 똬 등 모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여성들이었다는 점 역시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만남이었음을 지시한다. 모윤숙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위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 맺음을 주요 서사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당대 여성문인에게 기대되었던 여성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모윤숙은 자신이 관계한 여성인물들로부터 전통적인 젠더 이미지를 도출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여성으로 이정을 언급하며 마치 ‘고구려 여사’처럼 한국적인 미를 전파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자신을 순수한 벽촌 소녀로 가장하고 여성들에게서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미(美)를 발견해 나가는 서술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고착화하는 다분히 공적인 글쓰기의 지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제도권의 바깥에 위치한 여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억압된 여성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기독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순되는 사적 발화의 지점들에도 주목해볼 수 있었다.

모윤숙은 전통적 젠더관을 답습하면서 기독교적 여성성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스미스에게 감정적 동화를 경험한다거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주변인의 찬사를 받는 윤성덕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남편’과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견지되기도 하는 등 제도권 바깥의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내면 독백의 지점에서는 자기모순이 드러나는데,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육체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과 다르게 호텔방의 꽃다발을 보고 이성적 설렘을 느끼기도 했으며 식당 직원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기도 했다. 특히 함께 총회에 참석한 남성 지식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오로지 외면의 ‘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데, 이 지점에서는 남성들을 젠더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시선의 역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윤숙의 『내가 본 세상』은 유엔 총회담이라는 공적인 글쓰기와 일기라는 사적인 글쓰기의 역할을 교차하며 존재한다. 전통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젠더 전략의 방식이 작품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억압된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욕망을 표출하는 사적인 발화들이 차종되어 있다. 『내가 본 세상』의 구조적 모순은 역으로 복합적인 글쓰기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 참고문헌

### 자료

모윤숙(1962), 『포도원·내가 본 세상』, 일문서관.

### 논저

- 공임순(2008), 「스캔들과 반공: ‘여류’ 명사 모윤숙의 친일과 반공의 이중주」,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학회.
- 김경연(2019), 「‘빠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냉전의 젠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 김승구(2006), 「모윤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의 관련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 김양선(2010),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학회.
- 김양선(2020), 「한국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형성: 근대 초기~식민지기」, 『개념과 소통』 26, 한림과학원.

- 김옥성(2014), 「모윤숙 초기시의 심상지리 연구: 민족주의, 제국주의, 센터멘털리즘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2,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 김은경(2007),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하(2019),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랩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 김혜인(2023), 「모윤숙의 자기 서사 연구: 젠더 규범과 민족주의 아래서의 자기 증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 모윤숙, 「나의戀愛觀」, 『삼천리』, 1937. 10. 1.
- 모윤숙, 「戰後歐美女性의印象 各國女性의特徵」, 『경향신문』, 1949. 2. 27.
- 모윤숙, 「女性에게외친다」, 『경향신문』, 1952. 1. 1.
- 모윤숙, 「毛允淑女史가 말하는 美國女性界(中) 精神의傾向과 愛情觀」, 『경향신문』, 1957. 3. 19.
- 모윤숙·전숙희, 「毛允淑 田淑禧 新春對談 神秘와 古蹟의 나라 [希臘]」, 『경향신문』, 1959. 1. 5.
- 미상, 「國運을銀翼에UN」, 『경향신문』, 1948. 9. 10.
- 미상, 「UN代表團一行巴里서記念撮影」, 『경향신문』, 1948. 12. 23.
- 배인숙(2012), 「모윤숙(毛允淑)의 인식과 활동(1945-1953)」,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영순(2015), 「자유주제: 모윤숙의 세계기행문 『내가 본 세상』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4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송인화(2011),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1950년대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기독교: 임옥인의 『뜰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송인화(2016), 「김활란 자서전 『그 빛 속의 작은 生命』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 참여 방식과 공간의 정치」, 『인문학연구』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윤유나(2018),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의 교육과 여학생 작품의 'S' 감정」,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 윤향기(2009), 『한국 여성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영(2020), 「한국전쟁기 문예지 《문예》와 냉전 지리학의 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1-2, 한국근대문학회.
- 이임화(2004), 「[기획특집]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 이종연, 「黎明의 開拓者들 (15) 李貞愛」, 『경향신문』, 1984. 6. 16.
- 임정연(2014), 「여성의 이국 체험과 감성의 지리학: 1950-70년대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3, 이화어문학회.
- 장은영(2023), 「한국전쟁기 여성 문화인의 협력과 위반: 중군 기관지 『코메트』, 『戰線文學』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3-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최영훈, 「安浩彬씨 누구인가 초대 문교...「一民族주의」 주장 학도호국단創團」, 『동아일보』, 1995. 4. 17.

우에노 치즈코(1999), 이선이(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 ABSTRACT

# Mo Yun-suk's Gender Strategy and Private Writing Crossings

Bok, Gyung-Yeon\*

Based on the U.N. General Assembly in  
Paris, *The World I Saw*

In the 1950s, when they were able to think about the world through firsthand experience, Korean intellectuals visited the 3rd UN General Assembly and published their own records, and the only female writer's record was Mo Yun-sook's *The World I Saw*. In *The World I Saw*, the traditional gender role is followed by borrowing a strategy of "disguised apoliticality". However, on the one hand, private utterances that deviate from the role and reveal their desires are sometimes caught. In existing studies, discussions have been mainly conducted in terms of space or ethnicity of works, but this paper tries to pay attention to Mo Yun-sook's gender strategy and the point of self-contradiction that deviated from it.

Mo Yun-sook assumes her position as a "byeokchon girl", which is a tool to wrap up her identity, while the pure image of the Byeokchon girl served as a reference point for judging women. Mo Yun-sook's gender strategy was attempted in a way that advocat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purity. On the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other hand, behind this public writing, there were mixed private utterances outside the gender role that were required of women (civilians) of the time. In a heterosexual patriarchal society, women's sexuality has been punished and managed, but in *The World I Saw*, women's sexuality, which was taboo at the time, was affirmed with unavoidable self-desire, while rather objectifying male intellectuals, causing a gender reversal.

*The World I Saw* is a complex place of writing that intersects the role of public writing called the UN General Meeting and Mo Yoon-sook's private diary. It means that while the method of gender strategy emphasizing tradition and ethnicity encompasses the entire work, it is possible to discover private utterances about the sexuality or desires of women who have been suppressed.

**Keywords** *The World I Saw*, World Travel, Mo Yun-suk, Gender Strateg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rivate Writing

